

서구, '행복학교'로 부모·자녀 함께 성장



화정동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에서 열린 '함께서구 행복학교 3기 졸업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광주 서구청 제공

함께서구 행복학교 3기 졸업식 개최...

가족의 변화와 성장 공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가족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 '함께서구 행복학교 3기' 과정을 마무리하고 4일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에서 졸업식을 개최했다.

'함께서구 행복학교'는 4월부터 6월까지 10주간 부모의 자기 이해와 양육 역량을 높이는 '부모 행복학교', 아이들의 자기 주도성과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는 '자녀 행복학교', 자연 속 놀이와 예술 활동을 통해 가족 간 유대감을 강화하는 '함께 행복학교' 등으로 운영됐다.

3기 과정에는 30명이 참여했으며 부모들은 자신의 양육 방식을 돌아보고 자녀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며 가족 간 소통과 공감을 넓혔다.

또한 자녀들은 디지털 기기에서

벗어나 공원을 배움터 삼아 친구들과 함께 집을 짓고 놀이를 만들어가는 활동을 통해 협력과 배려, 문제해결 능력을 키웠다.

4일 열린 졸업식에서는 참여 가족들이 교육 참여 경험과 성장 사례를 발표하며 달라진 일상을 공유했다.

부모들은 자녀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 가족 간 소통이 늘어난 경험을 나눴으며 참여 가족 간에도 자연스러운 교류와 공감의 끈이 이어졌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행복학교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을 넘어 가족과 이웃을 연결하는 행복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행복중심 교육도시를 만들고 서구만의 교육 모델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구는 이번 3기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가족 중심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가족 간 소통과 공감 능력을 높이는 체험 중심 교육을 강화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부모의 양육 역량 향상에도 힘을 보탬이다.

참여자들의 만족도 조사에서는 가족 간 대화가 늘어나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또한 자연과 예술을 접목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아이들의 창의력과 사회성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이가영 기자

북구, 29억 투입해 농촌동 생활 여건 확 바꾼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선정

해산마을 정비에 2031년까지 29억 투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구청장 신수정)가 도심과 떨어진 농촌동의 열악한 생활 여건을 대폭 개선한다. 5일 북구에 따르면 지방시대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7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약 20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선정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번째 도시재생 분야 공모 성과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낙후된 환경에 거주 중인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안전 인프라 확충, 노후 주택 정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 대상지는 월출동 해산마을

로 주민 대부분이 고령층이고 30년이 넘는 노후 주택 비율도 높아 환경 개선 사업의 필요성이 큰 지역이다.

북구는 내년부터 오는 2031년까지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20억 원에 자체 예산을 더해 총 29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원 분야는 ▲안전 기반 정비 ▲노후주택 정비 ▲생활 인프라 개선 등이다.

먼저 붕괴 위험이 있는 공·폐가를 정비하고 마을 곳곳에 CCTV와 보안등, 안전간판을 설치해 주민 안전을 강화한다. 쾌적한 정주 여건 제공을 위해 오래된 슬레이트 지붕을 개

량하고 주택 내외부 수리를 지원한다. LPG 가스 배관망을 신설해 기존 도시가스 미공급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비좁은 마을길을 정비해 보행 환경을 개선한다.

아울러 사업 기간 중 노인돌봄 및 건강교실, 마을학교 등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해 소통 증진과 공동체 강화에도 힘을 보탬이다.

신수정 북구청장은 "이번 공모 선정은 주민들과 함께 오랜 기간 소통하고 준비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북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생활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들의 정주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특히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해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모두 고려한 환경 개선에

나선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주민 협의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마을의 역사와 공동체 문화를 반영한 공간 조성과 환경 정비를 통해 지속 가능한 마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북구는 노후 기반시설 개선과 함께 재난 예방 기능도 강화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을 예정이다.

아울러 고령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시설 개선과 복지 연계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생활 인프라 확충과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병행되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사업 완성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김정관 기자



북구청 전경 사진

/광주 북구청 제공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800조 반도체
환영합니다.



미래 100년
첨단산업 중심도시



반도체 산업으로
대한민국 성장 견인



전남·광주의
상생과 도약

사단법인전국기자협회

전남도민일보

수사일보

마한시티